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97

빌라도의 재판

(마태복음 27:15~33, 마가복음 15:6~23,
누가복음 23:13~32, 요한복음 18:39~19:17)

한참을 망설이던 빌라도 총독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저들은 예수가 백성들을 부추겼다는니
반역을 꾀했다는니 외쳐대지만
아무리 봐도 그 정도의 죄를 지은 것 같진 않아.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겠다!’**

당시 유대에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총독이 백성들의 뜻을 물어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과 ‘바라바’라는 죄수를 데려오게 했죠.
바라바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 있던
아주 악명 높은 죄수였어요!**

**“모두 듣거라! 올해도 내가 죄수 한 명을
풀어줄 것이다.
여기 바라바와 예수가 있다!
두 사람 중 누구를 풀어주는 게 좋겠는가?”**

**빌라도는 백성들이 당연히 무시무시한
바라바의 이름을 외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만 있을 리가 없었죠.
그들은 백성들 사이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저 오만한 예수가 한 짓을 잊지 마시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사기꾼 예수란 말이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의 속셈은 따로 있습니다!
이 참에 예수와 한 패인 사람들을 찾아내서
같이 벌 주려는 것이지요.
거기 넘어가시면 큰 일 납니다!”**

이렇게 없는 말을 꾸며내고 있었거든요.

**“뭘 주저하는가, 그대들의 뜻을 말해 보거라!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풀어 주길 원하는가?”**

**“바..바라바요!
바라바를 풀어 주십시오!”**

**“맞아요! 예수 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뭐, 뭐라구? 아니 대체 왜?
예수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총독님, 우리 백성들의 목소리
들리지 않으십니까?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죄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빌라도는 당황스러웠지만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목청껏
외치고 있었고 그들 뜻대로 하지 않으면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빌라도는 신하에게 물을 가져오게 한 뒤
그 물로 손을 씻으며 말했어요.

“나는 예수의 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이 일에 대해 다 책임질 수 있겠는가?”

“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자손들이 다 책임질 것이니
어서 예수를 죽여주시요!”

결국 빌라도는 판결을 내렸어요.

**“공... 듣거라! 죄인 바라바를 풀어줄 것이다.
리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빌라도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총독이 사는 집 마당으로 끌고 갔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는
침을 뱉고 놀려대기 시작했죠.

**“아이고.. 유대인의 왕께서 오셨습니까~
제 절을 받으십시오! 에잇 튜!”**

**“우리 귀하신 왕께서 왕관이 없으니까
좀 허전하지 않나?
왕관을 가져다 씌워 드리세! 켈켈켈!”**

**그들은 날카로운 가시를 엮어서 왕관을 만들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했죠.
예수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실 뿐이었어요.**

한편, 빌라도 총독은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 말을 걸었죠.

“다시 물겠소. 당신은 대체 누구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요?
나에게는 당신을 풀어 줄 수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단 말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침내
입을 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것이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 주려고
애를 써봤어요.
하지만 집 바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여전히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죠.

**“총독님! 만일 당신이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정말 반역자가 될 셈입니까?”**

결국 빌라도는 부담과 압박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는 조용히 꼬리를 감추었죠.

유월절, 금요일의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거리는 깜짝 놀랄 소식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기다렸죠.
그 중에는 흐느껴 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잠시 후,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나타나셨어요.

당시 법에 따라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죄인은
처형 장소까지 직접 십자가를 운반해야만 했죠.
새벽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무척이나 지쳐 보이셨어요.

한 발 한 발 힘겹게 발걸음을 떼시다가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와 함께 쓰러지고 마셨죠.

“에잇! 어서 일어나지 못해?
하.. 완전 녹초가 됐구만! 성가시게 말이야.”

병사들은, 거리에 나와 있던 한 사람을 불렀어요.
예루살렘을 구경하러
시골에서 온 ‘시몬’이란 사람이었죠.

“어이~ 거기! 이 약해 바바진 죄인 녀석 대신에
니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겠다!”

“아이 참... 알겠습니다요...”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자, 예수님은 겨우
몸을 일으키시고 비틀거리며 뒤를 따르셨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 뒤로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기 시작했죠.

“흑흑흑....”

그 중에 어떤 여인들이 슬픔에 울음을 터뜨리자
예수님께서서뒤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거라.”

그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형 장소로 향하셨습니다.
‘해골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이었죠.

역시 사형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죄인
두 명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왔어요.

이제 곧 골고다 언덕에는 커다랗고 높은
십자가 세 개가
세워질 예정이었어요.